

##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공동기획단

발산: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공동기획단

(담당: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류다솔, 070-5176-8164, dlyu@minbyun.or.kr)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취재요청]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1. 이주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3.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코로나시기에 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주민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각종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가혹한 노동환경 아래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과 노동착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동시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도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아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4. 이에 이주민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제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 일시: 2021년 3월 21일(일)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홍대입구역 2번출구)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화우공익재단
- 내용
  - : 1부 - 인종차별 반대 이주민 발언대
  - : 2부 -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선언문 낭독

● 첨부: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자료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계획

1.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17-19대 국회를 거치면서 13년 동안 6번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18-19대 국회의 경우 노회찬,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 김한길,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보수 개신교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모두 자동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로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결국 공동발의할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법안 발의자 10명을 간신히 채웠다.

- 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민들은 이미 일상 생활에서 각종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가혹한 노동환경 아래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8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차별과 노동착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동시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장과 권고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도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 2018년 내전을 피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에 대해 공격과 혐오가 가해지면서 난민법 폐지 요구 청원에 70만 명 가량이 참여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난민에 대하여 공포감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였고, 인종혐오의 내용이 담긴 표현들이 집회와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아무런 규제 없이 노출되었다.

- 인종차별이 반인류적 범죄라는 UN의 선언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따르고 이행해야 할 의제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개념조차 배울 기회가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2) 필요성

-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3월 21일이며, 이 날은 인종차별의 폭력성과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기회조차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본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종

차별이 국제사회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인종, 국적, 피부색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다.

- 특히, 해마다 이주 인권단체들이 협력하고 연대하여 공동으로 기념대회를 진행해 왔으므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2021년에도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 2) 행사 취지

### (1)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와 해결 과제를 찾고자 하며, 특히 2021년 현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와 발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알리고자 한다.

### (2)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실천과제 파악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해결과제가 큰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마스크조차 구입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주민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으며, 방역 관련 안내문자를 한글로만 받고 있어서 상당수 이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0년 12월 말 현재 39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방역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주민이 겪는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확인

- 이주민이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법 제정 노력이 지지부진한 현 시점에서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의제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이주 단체들이 함께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Stop Racism! Equality Act Now!  
인종차별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3월 21일(일) 오후 2시~4시 30분

## 1부 : 인종차별 반대 이주민 발언대

- \* 사회: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 취지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위원회)
- \* 미얀마 군부쿠데타 반대운동 발언: 재한 미얀마이주민
- \* 인종차별 철폐 발언대: 이주여성 통번역사,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민, 난민, 동포

노래공연 : 파드마 밴드 & 춤공연: 필리핀여성노동자 댄스팀

## 2부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 사회: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 \* 발제자 1: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어디까지 왔나"
- \* 발제자 2: 이현서(화우공익재단)  
"혐오와 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적 과제"
- \* 토론자: 김지혜(강릉원주대 교수), 예룡(만화작가),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선언문 낭독

- \* 장소: 홍대청년공간JU 5층 니콜라오희 (홍대역 2번출구)
-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화우공익재단
-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채널)
- \* 행사문의: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소장(010-4755-8420)  
\* 후원: 인권재단 사람
- \* 후원/분담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07-2521719 (이율도)